

나레이티브를 통한 아동의 애착 표상과 어머니의 성인애착 표상에 대한 연구*

이 경 숙

한신대학교

진 미 경†

남서울대학교

본 연구는 어머니 애착 표상과 아동의 애착 유형간의 세대간 전이에 대해 알아보고, 어머니의 원부모와의 애착 표상과 아동기 경험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은 6-9세 연령의 43명의 아동과 어머니들이다. 어머니들의 성인 애착 표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성인애착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이 이용되었으며, 아동의 애착 유형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Manchester Attachment Story Task)가 이용되었다. 그 결과 어머니들의 애착 표상과 아동들의 애착 유형간의 일치율은 43쌍 중 34쌍이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어 79%의 일치율을 보였다.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은 어머니 애착 표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내적작동모델, 아동 애착, 어머니 애착, 아동기 경험

* 본 논문의 자료는 2007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자료로 활용된 자료입니다.

† 교신저자 : 진미경,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충남 천안시 성환읍

Tel : 041-580-2324, Email : mkjin@nsu.ac.kr

Bowlby(1969)의 내적 실행 모델의 개념은 부모-자녀관계 애착 영역의 핵심 개념으로, 그에 따르면 어릴 때 경험한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관계의 표상이 일생동안 사람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Bowlby(1969)에 따르면 아동은 생애 초기에 맺는 양육자와의 상호작용 경험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내적 실행모델을 조직하게 되고 이렇게 형성된 내적 실행모델은 일생동안 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고 유지되어, 이후의 관계(relationship)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내적작동모델의 지속성과 변화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내적작동모델을 평가하는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다. Ainsworth(1978)의 ‘낮선 상황 실험’이 내적작동모델의 개인차를 평가하는 도구로 고안된 이후, 단기간 부모-자녀 애착 표상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박응임과 유명희, 1997; Lyons-Ruth, Repacholi, McLeod, Silva, 1991)들이 보고되어져 왔으며, 성인애착 표상을 평가하는 성인 애착 면접이 고안된 이후,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연구(진미경, 2006;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van IJzendoorn, 1995)들이 보고되어져 왔다. 그러나 부모-자녀 애착 표상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나,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영아 애착 관계와 성인 애착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고, 아동기 애착관계와 성인기 애착관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적 흐름 속에 최근에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유아기 애착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들이 개발되었다(Bretherton, Ridgway, & Cassidy,

1990; Main & Cassidy, 1988). Main과 Cassidy(1988)는 학령전기 아동들의 부모 자녀 애착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격리-재결합 절차를 이용한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Bretherton과 그녀의 동료들(1990)은 인형놀이를 통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로 인해 유아기 및 아동기를 대상으로 한 애착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에 애착관계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연구나, 아동기 부모자녀 관계와 관련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실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Main과 Cassidy(1988)의 격리-재결합 절차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도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애착 연구가 이루어졌다(홍계옥과 최경순, 1996). 또한 Bretherton 등이 고안한 애착이야기 완성 과제 방법이 이진숙(2001)의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와 유사한 기법으로 이야기 완성 과제 방법인 MacArthur Story-Stom Battery(MSSB)를 이용하여 표상에 근거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연구가 시도되어 왔다(신의진, 이경숙, 이혜란, 1999). 그러나 유아기 및 아동기 애착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들이 6세 이전의 학령전기 아동들의 애착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이 6세 이전의 학령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실상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들의 부재로,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도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근 학령전기의 유아부터 학령기 아동들까지 애착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고안되었다(Green, Stanley, Smith, & Goldwyn, 2000). 이들은 내적작동모델의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영아와 성인기 애착 연구들로부터 여러 개념

과 방법론을 응용하여 인형놀이완성방법인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를 개발하여 연구를 해오고 있으며, 평가 도구에 있어 연령 변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만 4.5세부터 만 9.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비했던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이 어떠한지를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를 통해 평가해보고자 한다. 또한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관계와 그들의 어머니들의 애착 표상¹⁾간의 일치율을 살펴봄으로써, 애착의 세대간 전이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성인 애착 면접은 성인의 애착관계에 대한 표상을 평가하는 표준화된 도구로 알려져 왔고, 성인애착면접을 통해 평가된 어머니 애착 표상은 영아기의 어머니-영아 애착 유형을 예언(일치율 75%)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Fonagy, Steel, & Steel, 1991; van IJzendoorn, 199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한 어머니 애착 표상 유형과 아동의 애착 표상간의 일치율을 살펴보고자 한다. 애착 관계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이론적 가정은 양육자가 아동기에 경험한 자신의 부모의 행동이 내재화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접 간접적으로 자신의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Main, George, & Kaplan, 1985; Main, Goldwyn, & Hesse, 2002).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아동기 때 부모가 지지적이고 정서적으로 유용했다면 애착대

상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후 성장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의 욕구 표현에 대해 보다 지지적이고 정서적으로 유용하게 반응함으로써, 자녀 역시 애착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내적 실행 모델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 애착의 전이에 대한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선행 연구들의 경향을 살펴보면, 어머니 본인의 애착 표상과 자녀의 애착 관계와의 일치도에 대한 연구들(장미자, 1998;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van IJzendoorn, 1995)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구체적으로 애착관계가 전이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원부모와의 양육 경험이, 이들의 애착 표상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분석하여 애착 관계의 세대간 전이 과정에 대한 기초 연구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양육자의 아동기 경험과 애착 표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애착 관계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연구에 있어, 그 경로에 대한 가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을 것이며 부모교육이나 상담 영역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맨체스터 애착이야기 검사를 통해 아동의 애착 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성인 애착 표상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연구문제 3 어머니의 성인 애착 표상과 아동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 유형은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어머니의 성인 애착 표상에 따

1) 본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원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애착관계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표상

라 어머니 아동기 경험들은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 표집은 2006년 9월부터 11월 까지 2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유치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인쇄물을 유치원에 배부하였고, 관심을 갖고 신청한 부모들과, 이들 부모들을 통해 부모자녀 평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참여 의사를 밝힌 부모들의 아동들 43명이 참여하였다. 아동들의 연령은 6세-9세였는데, 6-7세 아동 23명은 유치원을 통해 참여하게 된 아동들이었고, 8-9세 아동 20명은 인쇄물 홍보를 통해 참여하게 된 아동들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어머니들의 평균 연령은 29세였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모든 어머니가 고등학교졸업 이상이었고, 86% 이상이 전문대졸업 이상이였다.

연구절차

성인 애착 면접 실시와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 실행은 심리재활 전공대학원생 네 명이 전문가로부터 성인 애착 면접 실시와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에 대한 설명과 매뉴얼에 따른 일정한 훈련 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부모자녀 관계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서와 일정한 금액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 전 과정이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애착유형 분류는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절차와 평가를 위한 위

크숍을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수하고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한 본 논문의 교신 저자와, 교신저자로부터 평가 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상담 전공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k=.89$, $p=.00$ 였다. 불일치를 보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불일치 부분의 평정 근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일치하였다.

애착 면접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면담 전 녹취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 한 뒤 모든 내용은 녹취되었으며, 녹음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트랜스크립트(transcript)을 만들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트랜스크립트의 분석은 성인애착 면접의 실시 및 평가에 대한 연수를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이수한 교신저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의 신뢰를 위해 교신저자로부터 평가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은 상담 전공 대학원생에 의해 이루어졌다. 평가는 아동에 대한 사전정보 없이 이루어졌으며,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k=.89$, $p=.00$ 였다. 아동기 경험 척도들의 분석에 대한 두 평정자간의 신뢰도는 .89 - .93으로 나타났다. 불일치를 보인 사례들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불일치 부분의 평정 근거에 대한 논의를 통해 의견을 일치하였다.

측정도구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본 연구에서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이용된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는 Green과 동료들(2000)에 의해 낯선 상황실험의 개념과 성인애착면접의 개념을 통합하여 고안된 도구이다. 실험자는 양육자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네 가지 에피소드(다쳤을 때, 아플 때, 악몽을 꾸었을 때,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에 대한 상황을 연출하고, 각 상황에서 무

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완성하도록 아동에게 요구한다. 각 상황에 대하여 아동은 인형놀이를 통해 이야기를 완성하게 된다.

아동의 이야기 내용과 아동이 실험 중에 보이는 행동을 바탕으로 애착 유형이 분류되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평가가 되어진다. 첫째, 아동이 평상시에 인식한 양육자의 양육 행동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한다. 9점 척도의 양육에 대한 척도들로 근접성 추구(proximity), 양육자의 따뜻함(carer warmth), 양육자 민감성(carer sensitivity), 자기 돌봄(self-care), 강압적(intrusiveness), 갈등이 있는 행동(conflicted behavior) 등의 척도가 이들 척도들이다. 둘째, 아동의 이야기의 일관성(coherence)이 평가되는데, 담화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질적인 측면), 담화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지(양적인 측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관련성의 측면), 어법상 명확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 하는지(양식의 측면)가 평가된다(Green, Stanley, & Goldwyn, 2003; 진미경과 유미숙, 2005).

이러한 척도들을 바탕으로 애착의 유형 분류는 크게 안정애착, 회피애착, 저항애착, 비조직화 유형으로 분류되어진다. 각각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스트레스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완화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안정애착의 아동은 스트레스를 공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양육자의 돌봄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완화됨을 보여준다. 회피유형의 아동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기 돌봄의 형태를 보이거나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거부를 보인다. 저항애착 유형의 아동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양육자를 등장시키지만,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만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반되는 행동(contradictory behavior)들을 보이게 된다. 비조직화 유형의 아동은, 문제해결을 위한 1) 전략(strategy) 자체가 부재이거나, 2) 여러 가지 전략들을 혼합하여 보이며, 3) 동시적 혹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상반된 행동, 4) 맥락 밖의 상반된 행동으로의 갑작스런 움직임, 5) 불완전한 움직임들, 순간적인 얼어붙는 듯한 행동이나 정지 자세, 6) 부모를 향한 두려움, 7) 직접적인 비조직화된 행동 등을 보인다(Green, Stanley, & Goldwyn, 2003; 진미경과 유미숙, 2005).

본 도구는 Green등(2000)에 의해 평가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5.5달 후에 다시 실시해 본 결과 76.5%의 안정성을 나타내었고, Goldwyn등(2000)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애착 유형과 표준화된 도구로 알려진 성인애착면접을 통해 평가된 어머니의 성인 애착 표상 간의 일치율이 65.4%로 나타났다.

성인 애착 면접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원부모와의 애착 표상을 평가하기 위해 성인 애착 면접(Adult Attachment Interview, 이하 AAI)이 이용되어졌다. 성인 애착 면접은 개인이 원부모와의 아동기 경험으로부터 형성한 표상을 평가하는 준구조화된 인터뷰이다. 이 도구는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면접 과정은 개인들에게 어린 시절 각각의 부모에 대한 그들의 관계를 묘사할 수 있는 5개의 형용사 혹은 단어들을 제시하도록 하고, 각각의 단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억이나 사건들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부모로부터 거절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험, 위협을 당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험, 의미 있는 타인을 잃어본 경험, 학대를 받은 경험 등이 질문되어진다(진미경과 유미숙, 2005; Main et al., 1985).

성인 애착 면접은 아동기 경험들을 평가하는 부분들과, 아동기 경험으로부터 현재 어떠한 마음의 상태(current state of mind)를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경험들은 사랑(love), 거부(rejecting), 무시(ignore), 성취에 대한 압력(pressured to achieve), 역할전이(involve/role-reversing) 척도에 의해 평가되어진다. 이러한 아동기 경험에 대한 척도들은 성인 애착 표상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척도가 아니라 참조 척도로 이용된다. 또한 현재 마음의 상태에 대한 평가는 면접 내용에서 이상화(idealizing), 몰입된 화(involve anger), 애착관련의 평가절하(derogation), 기억의 부족(lack of memory), 수동성(passivity), 상실에 대한 두려움(fear of loss), 상실에 대한 미해결(unresolved of loss) 등이 나타나는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현재 마음의 상태에 대한 척도는 성인 애착 표상을 평가하는 일관성(coherence)과 관련이 된다.

이상화, 애착관련의 평가절하, 기억의 부족 척도와 관련하여 높은 점수(9점 척도 중 5점 이상)를 얻은 개인들은 거부형(dismissing)으로 분류되어지고, 몰입된 분노와 수동성과 관련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개인은 몰입형(preoccupied)으로 분류되어지며, 상실에 대한 미해결과 관련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개인은 미해결형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개인들은 일관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얻게 된다(진미경과 유미숙, 2005; Main et al., 2002).

위의 일관성 점수와 관련된 하위 변인들을 기반으로 애착 표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자율형으로 분류된 개인은 애착

과 관련된 경험들을 융통성 있게 숨김없이 터놓고 전개한다. 아동기 애착 경험을 회상할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일치하고, 각 질문들에 대해 분명하고 관련된 반응을 한다. 거부형으로 분류되어진 개인은 부모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기술 하지만, 그들이 제공한 구체적인 예들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고 대조된다. 또한 이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은 애착과 관련되지 않는 경험들은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 애착 경험을 기억할 수 없음을 보고한다. 이 유형의 성인들은 또한 애착경험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다. 몰입형으로 분류되어진 개인들은 애착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정서적으로 격한 경험을 이야기 할 때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변동적인 평가를 한다. 즉, 애착 인물들과 분노몰입을 나타낸다. 이들은 많은 아동기 경험들을 회상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들에 대한 기술은 객관성이 부족하고 일관되지 못하다. 분노에 몰입이 되어 있어 지나치게 긴 문장으로 이야기 하거나 문법상 오류를 보이는 문장들을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미해결/비조직화된 유형으로 분류되어진 개인은 유의미한 대상의 상실 혹은 정신적 충격이 큰 경험과 관련하여, 그러한 경험들을 기술 할 때 논거 혹은 사고의 조직에 있어 순간적인 착오나 실수 등을 나타낸다(진미경과 유미숙, 2005; Main et al., 2002).

본 도구는 Bakermans-Kranenburg과 van IJzendoorn (1993)에 의해 평가의 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2달 후에 다시 실안시해 본 결과 78%의 안정성을 나타내었고, 영아-어머니 애착 일치도를 18개 표본에 대한 메타 분석한 van IJzendoorn (1995)의 연구에서는 75%의 일치율이 나타났다.

아동기 경험 척도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아동기 경험을 평가하기 위해 성인 애착 면접의 아동기 경험들과 관련된 척도들이 이용되었다. 앞서 성인 애착면접 도구 설명 시 아동기 경험 척도들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지만, 실제 경험한 아동기 경험들과 그것을 현재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인식하고 있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고자 하여 아동기 경험 척도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을 하고자 한다. 아동기 경험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들은 사랑(love), 거부(rejecting), 무시(ignore), 성취에 대한 압력(pressured to achieve), 역할전이(involve/role-reversing) 척도들이며 모두 9점(1-9)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아동기 경험 척도들은 어머니와의 아동기 경험, 아버지와의 아동기 경험, 의미 있는 타인과의 아동기 경험의 세 영역으로 각각 평가된다. 아동기 경험 척도의 평가에 있어서는 개인의 보고를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황이 보고되어 질 때만 평가되어 질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와의 아동기 경험과 의미 있는 타인과의 아동기 경험의 분석에 있어서는 점수로 평정을 할 수 있을 만큼 인터뷰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미흡하여 본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실제로 AAI의 평정 시 아동기 경험을 객관적으로 평정할 만큼 명확하지 않은 경우 “평정할 수 없음(Cannot Rate)”으로 분류를 한다.

구체적으로 사랑 척도는 부모로부터 경험한 사랑 정도를 평가한다. 정서적인 지지와 관련한 경험이 기술 될 때 높은 점수로 평가되며, 의식주와 관련된 혹은 물질과 관련된 사랑의 경험 이른바 도구적(instrumental) 사랑의 경우는 3점 정도의 점수만을 획득하게 된다. 또한

거부 척도는 부모가 아동의 의존, 정서, 관심, 욕구와 애착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평가하는 척도이다. 무시 척도는 부모가 아동으로부터 가용적(available)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부주의하고 어느 곳에 몰입되어 있거나 아동이 심리적으로 접근(accessible)하기가 힘들었던 경험들과 관련된 척도이다. 이는 부모가 많은 가사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프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몰입되어 있기 때문 일 수도 있다. 성취에 대한 압력 척도는 아이가 어떤 특별한 지위를 성취하기 위해 압력 되는 정도를 평가한다. 문화권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척도이지만, 높은 점수가 부과되는 경우는 성취에 대한 관심이 부모와 아동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역할 전이 척도는 아동을 부모들의 신체적 심리적 돌봄에 관여하게 하는 정도를 평가한다. 아동이 부모가 걱정하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 하지 못하는 경우나 아동이 부모의 정서에 대해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끼는 경우 높은 점수로 평가된다(진미경, 2006, 재인용).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for Window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아동들의 애착유형 분포와 어머니들의 성인 애착 표상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여 알아보았고, 아동 애착 유형과 어머니 성인 애착 표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차분석이 이용되

었다. 두 집단 간 차이 분석을 하기 위해 χ^2 검증을 할 필요가 있었으나, χ^2 검증을 실시할 때는 획득도수와 기대도수가 5보다 작은 칸이 전체 칸 수의 20%이하여야 한다는 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χ^2 검증을 실시할 수가 없었다. 한편 어머니 성인 애착 표상에 따라 어머니 아동기 경험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이 이용되었다.

결 과

아동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

맨체스터 애착이야기 검사를 통해 얻어진 아동들의 애착 표상 유형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백분율을 구하였다. 비조직화 애착 유형을 포함한 네 가지 유형분포(ABCD)에 있어서는, 28%인 12명이 회피유형, 54%인 23명이 안정 애착, 9%인 4명이 저항애착, 9%인 4명이 비조직화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어머니 성인 애착표상 유형 분포

다음으로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 얻어진 어머니 성인 애착 표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유형분포에 있어 33%인 14명이 거부형, 51%인 22명이 자율형, 14%인 6명이 몰입형, 2%인 1명이 미해결형으로 분류되었다.

아동 애착 유형과 어머니 애착 표상 유형 간의 일치율

아동 애착 표상 유형과 어머니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네 가지 유형간 일치율을 살펴보면 있어서는 각 유형별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안정 애착 vs.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어머니가 안정 애착 표상(자율적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면서 아동도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는 쌍은 모두 18쌍으로 82%였으며, 어머니가 불안정 애착 표상(거부, 몰입, 미해결

표 1. 아동 애착 표상 유형과 어머니 애착 표상 유형 분포

어머니 애착	아동 애착				전체 (N=43)
	회피(A) (n=12)	안정(B) (n=23)	저항(C) (n=4)	비조직(D) (n=4)	
거부(Ds) (n=14)	10 (71%)	2 (14%)	1 (7%)	1 (7%)	14 (33%)
자율(F) (n=22)	2 (9%)	18 (82%)	2 (9%)	0 (0%)	22 (51%)
몰입(E) (n=6)	0 (0%)	3 (50%)	1 (17%)	2 (33%)	6 (14%)
미해결(Ud) (n=1)	0 (0%)	0 (0%)	0 (0%)	1 (100%)	1 (2%)
전체 (N=43)	12 (28%)	23 (54%)	4 (9%)	4 (9%)	43 (100%)

형)으로 분류되면서 아동도 불안정 애착 유형(회피, 저항, 비조직)으로 분류되는 쌍은 모두 16쌍으로 76%였다. 어머니는 자율적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아동은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쌍은 4쌍으로 18%였다. 반대로 어머니는 불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아동은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쌍은 5쌍으로 24%를 차지하였다.

어머니 애착 표상에 따른 아동기 경험의 차이

다음으로 어머니 애착 표상에 따라 아동기 경험들이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이 사랑 척도($t(25)=-3.12, p<.01$) 점수에서 높았다. 불안정 애착으로 분류된 어머니들이 거부 척도($t(41)=3.12, p<.01$), 무시 척도($t(41)=2.99, p<.01$)와 역할전이($t(33)=2.51, p<.05$) 점수에서 높았다. 그러나 성취에 대한 압력에서는 안정 애착 대 불안정 애착 유형간 차이가 없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유형과 어머니들 자신의 애착 표상 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고 그 일치도를 살펴보았으며, 어머니의 애착 표상과 아동기 경험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아동들의 애착 유형 분포에 있어서는, 회피 유형 28%, 안정 애착 54%, 저항 애착 9%, 비조직화 유형 9%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를 이용했던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Goldwyn등(2000)은 만 5.2세에서 7.7세 아동들의 애착 유형을 분석한 그들의 연구에서, 회피 애착 26%, 안정 애착 62%, 저항 애착 8%, 분류할 수 없음 4%를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각 유형별로 분포상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같은 평가도구는 아니지만, 유아를 대상으로 이야기 완성을 통한 평가도구라는 점에서 유사한 애착 이야기 완성 과제 도구를 이용

표 2. 어머니 애착 표상에 따른 아동기 경험들의 차이

아동기 경험 척도	어머니 애착								
	자율형 (n = 22)		불안정 애착 (n = 21)						t
			거부형 (n = 14)		몰입형 (n = 6)		미해결형 (n = 1)		
M	SD	M	SD	M	SD	M	SD		
사랑척도	3.64	1.59	2.64	.50	2.33	.52	2.00	.	-3.12**
거부척도	3.86	1.91	5.21	2.01	6.33	1.21	8.00	.	3.12**
무시척도	3.41	2.13	5.29	1.98	4.67	1.37	8.00	.	2.99**
성취 압력	1.23	.43	2.07	2.13	1.67	1.03	1.00	.	.11
역할전이	2.23	1.80	3.29	2.79	5.67	2.94	6.00	.	2.51*

* p < .05, ** p < .01

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Bretherton 등(1990)은 65.5% 안정 애착, 20.7% 회피 애착, 13.8%의 비조직 유형을 보고하였고, 이진숙(2001)은 56.4% 안정 애착, 22.8% 회피 애착, 20.8% 비조직 유형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도 각 유형별로 분포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자신의 애착 표상 분포에 있어서는 33% 거부형, 51% 자율형, 14% 몰입형, 2% 미해결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들과 비교해 살펴볼 때, Goldberg 등(1995)의 저서에서는 자율형이 45-55%, 거부형이 20-35%, 몰입형이 10-15%, 미해결형이 10-15% 정도로 보고됨으로써,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 애착 표상 분포를 살펴 본 국내 선행연구(진미경, 2006;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들의 결과와 비교해 살펴 볼 때는, 선행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포의 회피형(5-10%)을 보고해 본 연구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성인 애착 면접을 이용한 국내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한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의 수가 적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추후 성인애착면접을 이용한 연구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다음으로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로 분류한 아동 애착 유형과 성인 애착 면접으로 분류한 성인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을 살펴보았다. 안정 애착 대 불안정 애착 유형간 일치율을 살펴보았을 때는, 어머니가 안정 애착 표상(자율적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면서 아동도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되는 쌍은 모두 18쌍으로 82%였으며, 어머니가 불안정 애착 표상(거부, 몰입, 미해결형)으로 분류되면서 아동도

불안정 애착 유형(회피, 저항, 비조직)으로 분류되는 쌍은 모두 16쌍으로 76%였다. 어머니는 자율적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아동은 불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쌍은 4쌍으로 18%였다. 반대로 어머니는 불안정 애착 표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아동은 안정 애착 유형으로 분류된 쌍은 5쌍으로 24%를 차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안정/불안 두 유형으로 나누었을 때는 79%의 일치율을 보였다. 이는 43쌍의 어머니-아동 중에서 34쌍이 아동 애착 유형과 성인 애착 표상 유형간의 일치율을 보인 것으로 van IJzendoorn(1995)의 18개 표본에 대한 메타 분석의 결과인 75%의 일치율이나 최해훈 등(1998)의 연구에서 보고한 67%의 일치율 보다 다소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어머니의 자율적 표상과 아동의 안정 애착 유형간의 높은 일치도인데, 이는 아동의 안정 애착 유형과 성인의 자율적 애착 표상 상태가 매우 관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애착 표상 상태를 유지하는 성인의 아동이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다음으로 어머니 본인의 애착 표상과 아동기 경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취에 대한 압력(pressed to achieve)과 애착 표상간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아동기 부모와의 경험들이 안정 애착 표상과 불안정 애착 표상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안정 애착 표상을 형성한 어머니들이 사랑(loving)과 같은 아동기 부모와의 긍정적인 경험들을 보다 많이 보고하였고, 불안정 애착 표상을 형성한 어머니들이 거부(rejecting), 무시(ignoring), 역할전이(involving/role-reversing) 같은 아동기 부모와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보다 많이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아동기에 자신의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한 부모의 양육행동들이, 개인의 이후의 내적작동모델의 형성과 관련성이 있음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애착의 세대간 전이 과정의 가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들을 요약해 볼 때, 본 연구에서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성인이 된 이후에 애착 표상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과 아동의 애착 표상 유형간의 상당한 일치율을 보고하였다. 이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들은 내재화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직접 간접적으로 자신의 자녀와의 애착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애착 연구들의 가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교육 및 상담 영역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많은 부모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들이 양육자의 민감성을 증진시키는데 그 초점을 두어왔으나, 민감성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 효과에서 나아가 효과성을 유지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현재 양육 방법에 대한 변화 뿐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주는 개인의 원부모와의 관계 경험에 대한 표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자들 자신의 아동기 경험들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자신의 아동기 경험 및 원부모와 형성한 애착 표상이 자녀와의 현재 관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갖도록 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나레이티브 분석을 통해 학령전기 및 학령기 아동들을 대상으로 애착 표상 유형을 평가해 보았을 때 평정 척도 적용에 어려움이 없었고, 유형 분포에 있어

같은 도구를 사용했던 선행연구들과 비슷한 분포 비율을 보였으며, 성인 애착 면접을 통해 평가된 어머니들의 성인 애착 표상과 높은 일치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는 국내에서 아직은 표준화된 검사가 아니지만 임상현장 및 연구영역에서 활용가능한 도구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며, 그동안 도구의 부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비해왔던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 관련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연구 결과는 주의해서 받아들여져야 한다.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는 국내에서 아직은 표준화된 도구가 아니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의 수가 43쌍으로 그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앞으로 많은 반복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응임, 유명희 (1997). 애착의 지속성에 관한 단기종단적 연구: 영아기의 낮선 상황 애착 유형과 유아기의 애착 안정성. 아동학회지, 18(2), 33-46.
- 신의진, 이경숙, 이해란 (1999). 학령전기 아동의 심적 표상: 부모에 대한 심적 표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의학, 10(1), 21-33.
- 이진숙 (2001). 유아의 애착표상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계옥, 최경순 (1996). 유치원 유아의 모자녀

- 간 애착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1), 101-116.
- 진미경, 유미숙 (2005). 애착측정 도구들에 대한 개관: 시기별, 영역별 애착 평가를 위한 도구들의 개관. *인간발달연구*, 12(4), 139-158.
- 진미경 (2006). 영아의 애착 유형과 어머니의 애착 표상 유형에 대한 연구. *아동학회지*, 27(6), 69-79.
- 최해훈, 이경숙, 김태련 (1998). 영아의 애착 유형과 성인의 애착 표상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1), 131-14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Hillsdale, NJ: Erlbaum.
- Bakermans-Kranenburg, M. J., & van IJzendoorn, M. H. (1993). A psychometric stud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Reliability and discriminant valid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9, 870-879.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I: Attachment. NY Basic Books.
- Bretherton, I., Ridgeway, D., & Cassidy, J. (1990). Assessing internal working models of the attachment relationship: An attachment story completion task for 3-year-olds. In M. T. Greenberg, D. Cicchetti, & E. M. Cummings (Eds.), *Attachment in the preschool years* (pp.293-308). Chicago Press.
- Fonagy, P., Steele, H., & Steele, M. (1991). Maternal representations of attachment during pregnancy predict the organization of infant-mother attachment. *Child Development*, 62, 891-905.
- Goldberg, S., Muir, R., & Kerr, J. (1995). *Attachment Theory: Social developmental and clinical perspectives*. Analytic Press, Hillsdale, NJ : Erlbaum.
- Goldwyn, R, Stanley, C., Smith, V., & Green, J. (2000). 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relationship with parental AAI, SAT and child behaviour.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71-84.
- Green, J., Stanley, C., Smith, V., & Goldwyn, R. (2000). A new method of evaluating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young school-age children: 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Attachment and Human Development*, 2, 48-70.
- Green, J., Stanley, C., & Goldwyn, R. (2003).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Manchester.
- Grice, P. (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and J. L. Moran (Eds.), *Syntax and Semantics III: Speech Acts*. New York, Academic Press.
- Lyons-Ruth, K., Repacholi, B., McLeod, S., & Silva, E. (1991). Disorganized attachment behavior in infancy: Short-term stability, maternal and infant correlates, and risk-related subtyp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 377-396.
- Main, M., & Cassidy, J. (1988). Categories of response to reunion with the parent at age 6: Predictable from infant attachment classifications and stable over a 1-month period. *Developmental Psychology*, 24, 1-12.
- Main, M., George, C., & Kaplan, N. (1985). *Berkeley Adult Attachment Interview*. Unpublished

-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Main, M., Goldwyn, G., & Hesse, E. (2002). *Adult Attachment scoring and classification system*. Unpublished protocol, Department of Psych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van IJzendoorn, M. H. (1995).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parental responsiveness, and infant attachment: A meta-analysis on the predictive validity of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Psychological Bulletin*, 117, 387-403.
- 원 고 접 수 일 : 2008. 1. 8
수정원고접수일 : 2008. 3. 26
게 재 결 정 일 : 2008. 5. 9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Children's Attachment and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 Based on The Narrative Method

Kyung Sook Lee

Hanshin University

Mi Kyoung Jin

Namseou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1)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from mo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 to children's attachment patterns and (2) the associations between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maternal childhood experiences. The subjects were forty three children aged between six and nine and their mothers. The Adult Attachment Interview was used to assess mo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 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was used to classify children's attachment relationships. Exact agreement between mother's attachment representation and children's attachment patterns were observed in 34 out of 43 dyads(79%). As a preliminary finding, it could be said that maternal childhood experiences were related to Maternal attachment representation.

Key words : internal working model, children attachment, maternal attachment, childhood experience